

야구

4

2019년 3월 7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LG 트윈스 외야수 이천웅은 2019시즌 진정한 주전 선수로 거듭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사진제공 | LG 트윈스

(LG)

주전 노리는 이천웅 “잠실 해결사 되겠다”

LG 트윈스 이천웅(31)을 이루는 모든 것들이 달라졌다. 타석에서는 여유가 생겼고, 정신력으로 위기를 넘어서는 법도 알게 됐다. 이제 역대 연봉까지 받는다. LG가 이천웅에게 대해 자원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천웅의 2018년은 특별했다. 3루수 아도니스 가르시아의 부상이탈로 1루수 양석환이 3루, 좌익수 김현수가 1루로 연쇄 이동하는 상황에서 이천웅이 외야 공백을 충실히 메웠다. 112경기에 나서 만개한 기량을 선보였다. 0.340의 타율을 달성해 데뷔 처음으로 '3할 타자'라는 수식어도 얻었다. 외야 한 자리를 보장받으면서 신경써야 할 것이 늘었지만,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졌다. 이천웅은 “처음으로 타율이라는 걸 신경써봤다. 안타 하나의 소중함이 크게 느껴졌다”며 “타석에 계속 나가다보니 여유와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 촉박한 마음이 없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오늘 못 쳤으니 내일 나가면 더 늦게 해보자는 생각이었다.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컸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치열한 매일을 살고 있다. 외야에서 주전을 차지하기 위해선 김현수, 이형중, 채은성을 뛰어넘어야 한다. 결코 만만한 경쟁이 아니다. 이천웅은 “기회가 된다면 작년처럼 계속 경기에 나가서 팀에 공헌하고 싶다”며 “새 시즌 주전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 목표”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공을 조금 더 앞에 두고, 밀어치는 타구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집중 연습을 하고 있다. 타격적으로 보완해서 팀이 필요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속제가 더 있다. 수비력을 개선하는 일이다. 이천웅은 “타격 보완도 필요하지만 수비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타구 판단과 첫 발 스타트가 중요하다. 포기할 건 포기하고, 잡을 수 없는 타구엔 무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으로 “외야 세 자리의 수비를 다 볼 수 있게끔 안정성을 키워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매년 조금씩이라도 발전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는 이천웅은 달라질 내일을 기약하고 있다.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편집 | 고정일 기자 ico@donga.com

KIA 에이스 양현종, 첫 실전 등판...몸 상태 굵



KIA 타이거즈 에이스 양현종이 건강하게 2019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두 명의 새 외국인 투수와 함께 선발진의 중심을 잡아줘야 할 그는 더욱 무거워진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 컨디션을 착실히 끌어올리는 중이다. 사진 제공 | KIA 타이거즈

144km! 개막전 등판 이상 무

삼성과의 연습경기 2이닝 테스트 부상 완벽 회복...제 컨디션 찾아

KIA 타이거즈 양현종(31)이 정상적으로 제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다.

양현종은 5일 일본 오키나와 온나손 야카마구장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스프링캠프 연습경기에 중간투수로 등판했다. 2019 스프링캠프 첫 실전 등판이다.

2이닝 동안 9타자를 상대하면서 삼진 세 개를 잡았고, 각각 1개씩 안타와 볼넷을 허용하며 1실점했다. 투구수는 35개, 직구 최고구속은 시속 144km까지 나왔다.

개인 사정으로 스프링캠프 출발이 늦었지만, 컨디션 끌어올리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모습이었다. 단순히 직구뿐만 아니라 시즌 중 주로 사용하는 변화구 점검도 마쳤다.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을 모두 적절히 섞어 던졌는데 슬라이더 구속은 121~127km, 체인지업은 126~130km를 찍었다.

우려를 샀던 몸 상태로 지극히 정상이다. 지난해 포스트시즌 와일드카드결정전 이후 처음으로 오른 실전 마운드였지만, 통증이나 불편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시즌 말미에 당했던 옆구리 부상도 이제는 완벽히 털어낸 모습이다.

최근 수 년 간 많은 이닝을 소화한 부분 역시 큰 부담이 없을 전망이다. 양현종은 지난 시즌을 마친 뒤 누차 “원래 선수는 한 시즌에 맞춰 몸을 만든다. 구단에서 관리

를 잘 해주고, 나도 시즌 중에 컨디션 조절에 힘쓴다. 피로 누적은 걱정 안 해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올해도 팀 선발 로테이션 한 축을 맡아 굳건히 마운드를 지킬 예정이다.

2019시즌 짙어진 짐은 더욱 더 무겁다. KIA는 올시즌을 앞두고 이제까지 검증됐던 외국인투수 카드를 모두 바꿨다. 새로운 외국인투수 제이콥 터너와 조 윌랜드는 아직까지 몸값표 부호가 달린 투수들이다. 실전 검증을 마치기 전까지는 ‘에이스’ 양현종이 분명 선발진의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KIA의 올 페넌트레이스 개막전은 3월 2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다. LG 트윈스 상대로 주말 2연전이 예

정돼 있다. 양현종은 당연히 홈에서 열리는 시즌 개막전에 선발투수로 나설 예정이다.

시즌 출발인 홈 개막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가장 믿음직한 에이스에게 선발 마운드를 맡기는 게 당연하다. 기본 좋은 기록도 따르기에 양현종 카드는 더욱 더 힘을 받는다. 양현종은 2017년과 2018년 첫 선발등판에서 모두 승을 챙겼다. 두 경기에서 모두 퀄리티스타트(QS·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를 기록하며 선발투수의 역할도 다 해냈다. 시즌 출발에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양현종은 2019시즌 개막전 역시 100% 준비된 모습으로 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은성 기자 award@donga.com

“영건들 자신감 심기” 송진우의 오키나와 미션

(한화 투수코치)

일본 오키나와에 스프링캠프를 차린 한화 이글스가 곧 귀국한다. 6일 고진다구장에서 예정됐던 LG 트윈스와 연습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돼 실전 테스트 일정은 종료됐다. 이를 더 훈련한 뒤 9일 귀국길에 오른다.

한화가 이번 캠프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대목은 ‘선발진의 완성’이다. 원투펀치를 예약한 두 외국인투수 워릭 서포드(29)와 채드 벨(30)의 뒤를 이을 3~5선발 자리에 들어갈 국내투수들을 점검하고 적임자를 찾는 일이었다. 오키나와에서 김민우(24), 김재영(26), 김성훈(21), 박주홍(20) 등 20대 초반 선발 후보군을 집중 테스트하면서 다행히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캠프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이미 한용덕 감독(54)의 선발진 구상은 끝났다. 12일 개막

하는 시범경기부터 새 시즌의 선발로테이션이 가동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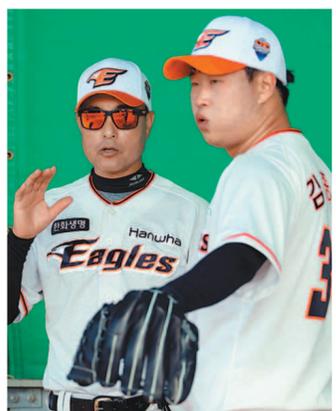
한 감독을 보좌해 선발진 퍼즐조각 맞추기 작업을 이끈 이는 송진우 투수코치(53)다. KBO리그 개인통산 최다승(210승)과 최다탈삼진(2048개)을 비롯한 여러 대기록을 보유한 한화의 레전드다. 한화 투수들의 자상한 코치이자 대선패인 그는 “어린 투수들로 3~5선발을 채워야 하는 우리 팀 마운드의 사정이 분명 여의치는 않지만, 그중에서 발굴하고 키우는 것이 내 임무이자 숙명”이라고 밝혔다.

오키나와 캠프에서 40일 가까이 젊은 투수들의 훈련을 지도하고 실전 적응력을 확인하는 동안 송 코치가 가장 강조한 덕목은 ‘자신감’이었다. 그는 “골프의 퍼트에 비유하자면, 능력이 있는데도 자신감이 떨어

지는 선수들은 퍼트를 하면 대개 홀 앞에서 공이 멈춘다. 자신의 능력을 믿는 선수들은 다르다. 용감하게 홀을 공략한다”고 설명했다. 박주홍을 예로 들며 “확실히 지난해보다 좋아졌다. 아직은 직구의 높낮이 조절에 아쉬움이 있지만, 커브의 컨트롤은 많이 좋아졌다”며 “어린 투수라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코치는 끝으로 “우리 투수들은 지난해 많은 발전과 실재를 반복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좀더 자신감을 갖고 각자의 한계를 뛰어넘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마운드에 오르면 길게 뜬 뜬이 없고 공격적으로 투구했던 자신의 선수 시절 모습을 후배들이 재현해주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묻어났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골프 퍼트도 자신감이 성패 좌우” 박주홍 등 ‘젊은 피’ 발굴 성과도



한화 이글스 송진우 투수코치(왼쪽)가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캠프에서 불펜피칭을 하는 김준수에게 조언을 건네고 있다. 사진제공 | 한화 이글스

눈 내리는 애리조나...비바람 치는 오키나와

현지 기상조건 따라 캠프 희비교차 롯데·LG, 쾌적한 날씨에 함박웃음

“우리 현역 때와 비교하면 오키나와 날씨가 많이 달라졌다. 바람이 훨씬 강해져 춥게 느껴지고 비도 많이 온다.”

일본 오키나와에 스프링캠프를 차린 각 팀 베테랑 코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다. 오키나와는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따뜻한 남쪽 나라’였다. 그러나 현지인들도

고개를 갸웃하는 이상기후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 1월부터 3월까지 비가 많이 왔고 바람이 특히 강해졌다.

4일 한화 이글스와 SK 와이번스는 고진다구장에서 평가전을 치렀다. 모처럼 화창한 날씨였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수차례 경기가 중단됐다. 3일 킨구장에서 예정됐던 KIA 타이거즈와 SK와이번스와 경기도 우천으로 취소됐다. 비와 바람은 체감 온도를 크게 낮춘다. 특히 투수들에게는 힘겨운 날씨다. 오키나와는 오락가락

중잡을 수 없는 날씨가 이어져 훈련스케줄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일본 프로야구 1군 팀들과 연습경기가 매력적인 미야자키역시 과거에 비해 날씨가 쌀쌀하다.

미국 애리조나 또한 과거와 날씨가 다르다. 건조하고 따뜻한 기후로 최악의 스프링캠프지로 꼽혔지만 최근 몇 년간 2월에 눈이 내리는 등 날씨가 변덕스럽다. 메이저리그 팀들도 애리조나 날씨를 고민하고 있다.

1차 캠프를 대만 가오슝에 차린 롯데 자이언츠는 반대로 쾌적한 날씨를 마음껏 누렸다. 호주 시드니에서 1차 캠프를 소화한 LG 트윈스도 페넌트레이스 경기 대부분이

열리는 야간시간에 맞춰 맞춤 훈련을 할 수 있었다.

전통적인 스프링캠프 장소인 오키나와, 애리조나의 이상기후가 이어지며 각 구단의 고심은 커지고 있다. KBO 관계자는 6일 “각 팀 실무자들과 함께 장기적인 대책을 의논하고 있다”고 밝혔다. KBO는 중국 하이난에 대규모 캠프 부지 장기 임대론을 논의하기도 했다. 각 팀 팬들과 함께하는 관광프로그램 개발도 연계돼 있다. 날씨가 따뜻하고 복수의 팀이 함께 훈련하며 평가전을 치를 수 있는 넓은 부지 확보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